

봉신

5600톤급 케미컬선 강재절단식



중견 국적선사 봉신(선우해운)이 지난해 10월 경 목포지역 조선소인 (주)동방에 발주한 5,600DWT급 케미컬탱커 2척에 대한 스틸커

팅(강재절단)식이 7월13일 오후 1시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우상선 정대균사장, (주)동방 함로수사장, 한국선급(KR) 김종철 목포지부장,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봉신이 지난해 발주했던 이들 선박은 이날 강재절단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작업에 들어가 내년 2007년 6월경 1차선을 완공할 예정이다. 당시 봉신이 발주한 선박은 2척+옵션 2척 등 4척이다.

선우상선은 현재 7척의 케미컬탱커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신조선을 인도받을 경우 모두 9척으로 늘어나게된다.

SK해운

창립 24주년 기념식 거행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지난 6월28일 제24주년 창립기념일(6월29일)을 맞아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올해는 본사 전임



직원뿐만 아니라 일본 및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현지 채용인도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화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SK해운이 대한민국의 자원수송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영환경의 불안정성 및 불가측성이 심화되는 하반기도 철저한 Risk Management를 바탕으로 이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SK Manship상 수여식도 거행되었으며, 이 사장은 해상 직원 및 지방, 해외 근무직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STX Pan Ocean

도성어촌계와 자매결연

STX Pan Ocean(대표 이종철)은 '1사 1(어)촌 자매결연'운동의 일환으로 6월2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도성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 체결 행사에는 STX Pan Ocean 임직원과 해당기관 및 어민들이 참석했으며, 행사 후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해안청소를 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STX Pan Ocean은 이날 어촌계 입구에 '도성어촌계-STX Pan Ocean 자매결연 마을'이라고



적힌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으며, 자연이 아름답고 굴과 낙지 등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물이 많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금상선

인천항 LCL 서비스 개시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7월 하순부터 일본-인천·평택간 주 1항차 항로에서 오사카·고베·나고야발 인천항 LCL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선사는 이미 이 항로에서 일본발 평택항 LC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LCL의 인수 제1선은 7월20일 오사카를 출발하는 'Sinokor Masan'호로 알려졌다. 이 선박의 일본 항만출항은 오사카(목요일)/고베(목요일)/나고야(금요일) 순이다.

한편, 장금상선은 7월1일부로 서철호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 서철호, 이명고, 손영도, 손정환 △과장 : 정호일, 이성욱, 안성진, 최성권, 이제현, 박대형, 박성수 △대리 : 호수현, 김정모, 고준영, 정웅, 박상석, 김민중, 황정진, 이윤성, 안진구, 박진영, 손효준 △계장 : 강일훈, 유국일, 이용석, 이만성, 민동현, 박정혜, 최유정, 정수진, 전필선

한진해운

'브레머하펜호' 구주항로 투입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6,500TEU급 초고속 최첨단 컨테이너선인 한진 '브레머하펜호'를 아시아-구주 노선에 투입했다.

한진해운은 7월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6,500TEU급 초고속 컨테이너 사선인 한진 브레머하펜(Hanjin Bremerhaven)호를 7월11일부터 아시아↔구주를 운항하는 FEX(Far East Europe Express Service)항로에 투입,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한진 브레머하펜호는 한진해운의 6,500TEU급 신조 시리즈 8척 중 처음으로 투입되는 최신행 사선이다. 이 선박은 5만8,000재화중량톤(Deat Weight Ton)으로 컨테이너 적재능력 6,655 TEU, 길이 304미터, 엔진출력 9만3,000마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컨테이너선이다.

또한, 최근에 건조된 9,000-10,000 TEU 급 최신행 선박들 보다 더 빠른 세계 최고의 초고속 운항 속도를 자랑한다.

현대상선



소니사 '최우수 선사상' 선정돼

현대상선(hmm21.com, 대표 노정익)이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일본의「소니(SONY)」사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선사상(Global Partnership Carrier, GPC)'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니사는 매년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경쟁력, 선대 규모, 협력 관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선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20여개의 세계 일류 해운업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소니사로부터 3년 연속으로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한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상선이 유일하다.

현대상선측은 "3년 연속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것은 철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상선의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앞으로의 수송계약에서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소니사의 컨테이너 물량 중 20,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수송했으며, 올해는 약 50% 증가한 30,000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3,500만달러 이상의 매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흥아해운

직원 승진 및 주재원 발령

흥아해운(회장 이운재)은 7월1일부로 총 48명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와 함께 12명의 주재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승진] △부장대우 : 김성곤(안전관리팀) △과장대우 : 백근형(상해사무소), 박준형(울산사무

소), 이석영(공무팀), 강승욱(뭍바이사무소), 안중인(회계팀) △과장 : 이훈호(인천영업소업무팀), 김상국(업무팀), 박재홍(울산사무소), 류규열(수입삼국간영업팀), 하만기(영업팀), 문제식(영업팀), 이희연(전산팀), 정두고(영업팀) △대리 : 김효정(영업팀), 박진숙(수입삼국간영업팀), 서승희(수입삼국간영업팀), 손지영(총무팀), 김성민(업무팀), 박형도(수입삼국간영업팀), 박신용(인천영업소업무팀), 김택록(운항팀), 이학준(해사팀) △계장 : 손희정(수출영업팀), 안정미(수출영업팀), 차승민(인천영업소업무팀), 김승빈(재무팀), 김민철(총무팀), 윤성욱(전산팀), 유성만(수출영업팀), 금은희(업무심사팀), 진병훈(영업팀), 박정서(재무팀), 박영기(수출영업팀), 윤인철(수출영업팀), 황문석(수입삼국간영업팀), 손병철(운항팀), 김명진(수출영업팀), 전희진(업무심사팀), 윤선재(회계팀), 정우송(기획팀), 이상욱(해사팀) △4급 : 김보라(총무팀), 이정민(업무팀), 김승빈(업무팀), 김은숙(관리팀), 송영임(컨테이너관리팀), 전정은(수입삼국간영업팀)

[주재원 변경] △수출영업팀 정훈 대리→자카르타 사무소 △수입삼국간영업팀 류규열 과장→팔라룸푸르 사무소 △회계팀 오지현 계장→방콕 사무소 △팔라룸푸르 사무소 곽동현 차장→수입삼국간영업팀 △자카르타사무소 장계용 과장→수출영업팀 △방콕사무소 김우재 대리→업무심사팀 △심천 중국본부 한영락 차장→상해 중국본부 △수입삼국간영업팀 장석기 대리→상해 중국본부 △수입삼국간영업팀 신성훈 대리→상해 중국본부 △상해 중국본부 채희준 대리→수입삼국간영업팀 △안전관리팀 김영민 과장→오사카안전감독관 △오사카안전감독관 김권추 차장→공무팀장